

Deloitte.

Digital for Open Finance

딜로이트 컨설팅
Financial Services Industry Leader
이형인 전무



October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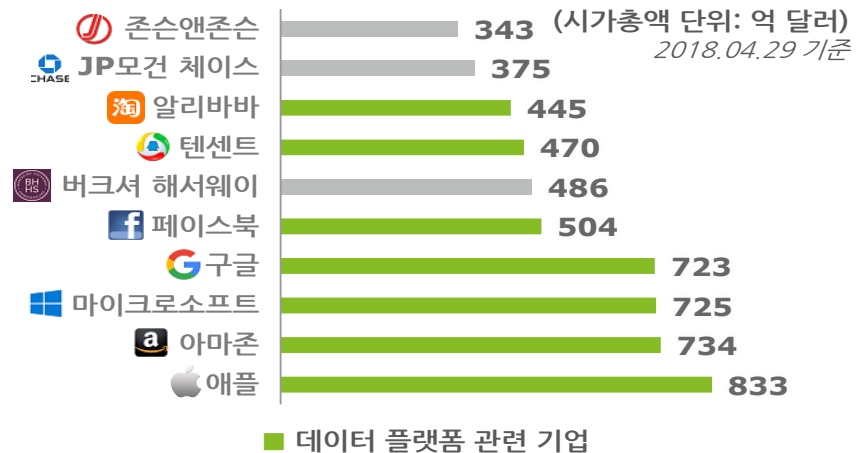
Digital for Open Finance

들어가며

“디지털로의 전환은 생존의 문제이다”
by Francisco González CEO of BBVA
[Financial Times 2013. 12.2]

전세계 9천여 개의 지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합금융회사인 BBVA의 CEO인 Francisco González는 “디지털로의 전환은 기존 은행의 기술, 기업 문화의 근본적인 뒤흔음이 필요하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다.”라고 선언을 했다. 즉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거대 Data Enterprise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 모바일 및 인터넷 채널의 확장,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완전하게 맞춤화된 고객의 요구 등에 대한 경쟁력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하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카카오와 같은 거대 Data Enterprise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쇼핑을 하며, 인터넷과 모바일로 모든 결제를 비롯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의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론의 여지가 많지 않다. 또한 전세계 시가총액 Top5 기업 전체, Top10 기업 중 애플,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7개 기업이 디지털/데이터 플랫폼 관련 회사라는 국제적인 현실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다행히 금융기관은 아직 강력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우위는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습관, 취향, 니즈, 욕구 등 많은 것을 파악하고, 이를 지식으로 만들어 완전하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디지털 채널로 제공한다면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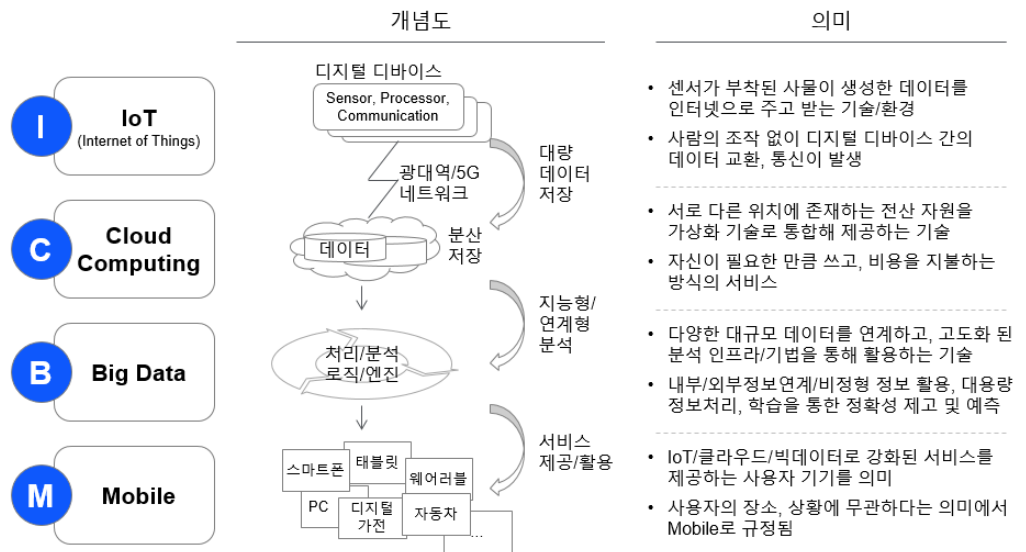
전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사회’, 즉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¹⁾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러한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치 하에 IoT, Cloud, Big Data, AI, Mobile 등의 Digital Technology를 활용하여 기존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1) 미국 Pew 리서치 센터 2018년. 조사대상 39개국 중 1위. 인터넷 사용률 96% 1위. 스마트폰 보급률 94% 1위

주요 Digital 기술 및 연결성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by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2011]

금융기관이 주목을 해야 할 Digital의 주요 요소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으로 대표할 수 있다. 각 기술들은 영역별로 개선되고 진화를 더해가고 있으며, 영역간의 결합(Integration) 및 융합(Convergence)도 그 밀도 및 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즉 2017년 기준 여러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Sensor를 장착한 IoT Device가 200억개¹⁾가 연결되어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는 Cloud환경을 통해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저장 및 공유가 되며, 저장된 데이터는 Big Data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분석되고, 분석 및 생성된 여러 지식(Insight, Knowledge)들은 전세계 23억개²⁾의 Smartphone 및 Mobile Device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연결고리의 본질은 '데이터'이다. 즉 '네트웍을 통해 공유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핵심기술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마이클 델 회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가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공표하고 있고, 더욱 공감을 얻어가고 있으며,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2011년에 '그리 멀지않은 시간 내에 인간의 뇌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정도이다'³⁾라는 예측이 이미 나올 정도로 크고, 깊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변화되고 있는 뇌 구조에 맞추기 위해 국내 금융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산업의 'Digital 전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1) Statista 2018. Internet of Things (IoT) connected devices worldwide from 2015 to 2025 (in billions)

2) Statista 2018. Number of smartphone users worldwide from 2014 to 2020 (in billions)

3)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니콜라스 카. 2011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됨과 동시에 보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
금융위. 2018.3]

Open Data

국내 금융기관은 자사의 고객데이터를 비롯한 수백 Tera에서 수 Peta¹⁾에 이르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 양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를 위시한 국내의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Data Enterprise와 경쟁을 하기 위해, 또한 금융 이외에 비금융서비스까지를 Mobile환경에서 제공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증가해야 한다.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의 장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생성,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성이다. 즉 금융기관의 채널 및 사업 영역을 뛰어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Digital 전환'은 내부만의 혁신, 즉 '찾잔속의 태풍'에 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규제 한계성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타 국가에 비해 엄격한 '고객정보보호' 규제의 틀에 막혀, 금융지주사 내의 금융계열사끼리도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사는 비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복합서비스/통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추어 최근 금융위에서는 '금융분야 데이터 종합활용 방안'²⁾을 발표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집중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과제는 규제기관이 기업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더 나아가 '공유'할 데이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공유를 하고, '보호'를 해야할 데이터는 Hacking이 불가능하도록 막는 Block Chain과 같은 Digital Technolog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Block Chain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런 Level로 설계 및 구현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기관간의 결제에 드는 수수료의 획기적 절감, 결제기간 단축 및 기업간의 정보공유에서 유발될 수 있는 '정보보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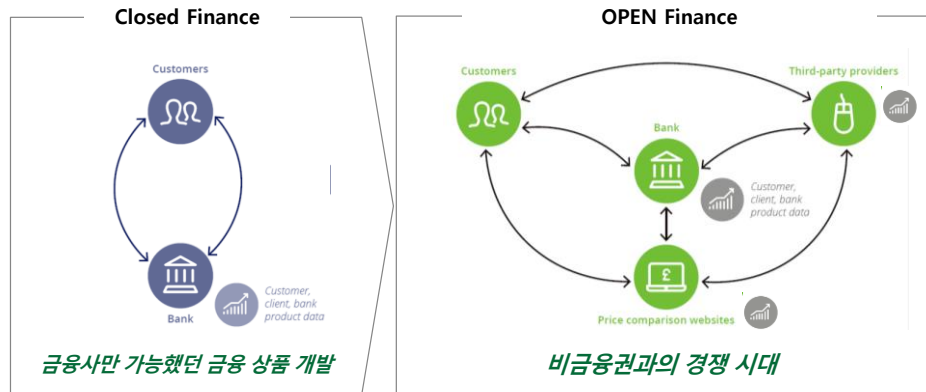
1) 2018. Deloitte Consulting Analysis based on Big Data Projects of Shinhan, NH, IBK, Kyobo, etc

2)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금융위원회. 2018년 3월

**Digital의 핵심은
 Open이다.**

Open Finance from Open Data

이와 같은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완화는 "판매 채널"과 "금융상품 개발"의 분리로 이어져 비금융권 경쟁자들이 금융업무에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금융업의 License라는 규제적 장벽도 있지만 금융상품 개발의 핵심인 Pricing과 신용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고객정보로서, 고객 정보가 없는 비금융권 기업들은 금융사업 영역에 진입 불가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금융권 기업들이 금융사 고객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편의성을 강점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고객의 '주거래 금융사', '주거래 금융 APP'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생존을 위해 금융사는 Open Finance사로 변모를 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영역은 다섯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Open Data : 외부의 데이터 획득 및 결합을 위해 자사의 데이터도 제공해야 한다.
2. Open API : 외부와의 연계를 위해 내부의 기능/시스템도 제공해야 한다.
3. Open Channel : 외부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4. Open Talent : 내부인력 뿐 아니라 외부의 인력/역량도 활용해야 한다.
5. Open Business : 비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업모델도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금융기관이 단 시간 내에 쉽게 이루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를 생존의 문제로 인지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작지만 강력하게 Digital화가 되어 있는 팀을 결속하여, 단계적으로 Digital Culture를 내재화 해 나가며, 작은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즐거운 Digital 전환'의 여정이 되리라 판단된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